Trends in Japan's Plastic Container Market

일본 플라스틱용기시장 동향

Writer

오수진

일본 도쿄무역관

Contents

Ⅰ. 시장 현황 및 규모
Ⅱ. 플라스틱용기 수입 및 경쟁동향
Ⅲ. 유통구조 및 관세율
Ⅳ. 결론

※ KOTRA 글로벌윈도우
(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Ⅰ. 시장 규모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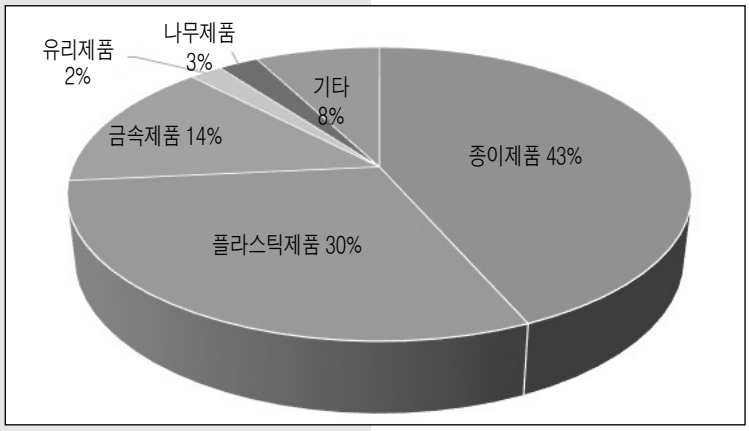
2019년 일본의 포장용기시장은 출하금액 기준 5조 6,953억 엔으로, 그 중 플라스틱용기는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용기 출하금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조 7,120억 엔이다.
일본플라스틱식품용기공업회에 의하면 플라스틱용기 중 식품포장용기시장은 약 4,000억 엔 규모이고, 일본 내 간이식품시장의 용기제조업체는 약 100개사에 달한다고 한다.
NAPHTHA 등 플라스틱 용기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업계 전반의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편의점에서 도시락 등을 구입하는 중식(가정 밖에서 조리된 식품을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등으로 가정에서 먹는 식사형태) 또는 내식(가정 내 조리 및 식사)의 수요가 확대되고, 소매업체들은 고령자용 식사, 식재료 택배 서비스도 강화하는 추세이다.

[표 1] 일본 포장용기 출하금액 **(단위 : 억 엔)**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률(%) 2019/2018
종이제품	24,686	24,610	24,732	100.5
플라스틱제품	15,622	16,784	17,120	102.0
금속제품	8,747	8,179	8,144	99.6
유리제품	1,248	1,195	1,157	96.8
나무제품	1,361	1,361	1,412	103.7
기타	4,304	4,471	4,389	98.2
포장용기 합계	55,967	56,601	56,953	100.6

[자료 : 일본포장기술협회]

[그림 1] 일본 포장용기 재료별 점유율



[자료 : 지엔컨설팅]

[표 2] NAPHTHA 가격추이표 (단위 : 엔/㎘)

	1월~3월	4월~6월	7월~9월	10월~12월
2017년	41,800	39,100	36,100	44,600
2018년	47,900	48,700	53,500	54,200
2019년	41,200	45,400	40,200	41,300
2020년	44,800	25,000	-	-

[자료 : Daikei Kagaku 홈페이지 참조해 도쿄무역관 작성]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 영향으로 테이크아웃, 딜리버리, 슈퍼마켓에서의 반찬 판매 등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용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II. 플라스틱용기 수입 및 경쟁동향

최근 3년간 일본 플라스틱용기 수입규모를 살펴보면, 중국, 미국, 한국, 베트남, 태국 등의 국가에서부터 주로 수입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수입액 1,005만 달러로 시장점유율 4.46%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306만 달러로 8.75%를 차지하며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일본 식품용기업계의 대표적 기업인 에후피코는 10기 연속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3월 결산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2.9%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1%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식품용기의 수요가 가속화되어 꾸준한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츄오화학은 2020년 3월 결산 기준 전년대비 8%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47%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테이크아웃, 택배 등의 수요는 늘어났으나 이벤트, 스포츠 관련 수요가 급

[표 3] 일본 정부의 탈 플라스틱 정책에 대응한 신소재 개발 예시

분류	개발기업	주요 특징	비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빨대	미쓰비시케미컬	Bio PBS(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식물유래 생분해성 신소재) 사용	2019년부터 KEIKYU전철 및 관련 기업에서 사용 중
석회암 활용 특허 소재 개발	TBM(벤처기업)	LIMEX(플라스틱과 종이의 대체소재로, 원재료인 석회암을 일본 국내에서 대량 채취 가능해 가격 경쟁력 있음)	식기, 메뉴판, 포스터 등에 활용 중
플라스틱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오지홀딩스	종이표면에 특수코팅을 하여 산소나 수증기가 통과할 수 없는 포장소재	테이크아웃 음료 뚜껑, 종이빨대 등에 활용 중

[자료 : 각 기업 홈페이지 참고해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사진 1] 신소재 Bio PBS 빨대 사진

[자료 : 미쓰비시케미컬 홈페이지]

감할 전망이다.

도요제관그룹홀딩스는 포장용기 관련 사업분야의 2020년 3월 결산 시 세제 리필용 파우치 및 검사 시약 용기 등이 호조를 보였다.

이 회사는 플라스틱제품 제조 자회사로 뫼비우스포장을 신설하였으며, 아이치현 도요하시에 레토르트 파우치 등 연포장 생산을 위한 신 공장을 건설하여 관련 분야의 점유율을 높이고자 했다.

III. 유통구조 및 관세율

해외기업의 일본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직접 법인을 설립해 도매업체에 납품하거나 각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형태가 있다. 그리고 해외기업의 경우에는 수입업자를 특정하여 수입업자를 통해 제품을 수입하여 해당 유통경로에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S Code 3923.10.000 플라스틱용기는 WTO 협정으로 무 관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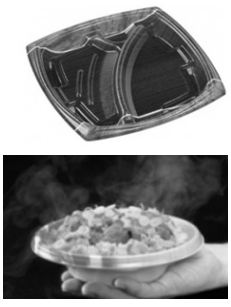
수입 시에는 식품위생법, 용기포장리사이클법, 제조물책임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비닐봉지 유료화가 시작되는 등 환경문제에 관한 법규제의 최

[표 4] 일본 플라스틱용기의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3923.10.000 기준) (단위 : US$ 천, %)

순위	국가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9/2018
	전 세계	225,563	150,583	149,289	100	100	100	-0.86
1	중국	117,353	80,571	72,561	52.03	53.51	48.6	-9.94
2	미국	14,948	16,950	19,098	6.63	11.26	12.79	12.67
3	대한민국	10,058	8,787	13,061	4.46	5.84	8.75	48.65
4	베트남	22,413	8,986	8,199	9.94	5.97	5.49	-8.75
5	태국	11,410	6,106	7,112	5.06	4.06	4.76	16.47
6	대만	7,062	5,689	5,247	3.13	3.78	3.51	-7.77
7	독일	2,532	3,124	5,106	1.12	2.08	3.42	63.42
8	말레이시아	3,316	3,666	3,300	1.47	2.43	2.21	-9.99
9	프랑스	5,691	5,374	3,293	2.52	3.57	2.21	-38.71
10	인도네시아	5,298	2,645	2,765	2.35	1.76	1.85	4.54

[자료 : Global Trade Atlas (2020.9.17.)]

[표 5] 일본 플라스틱용기 주요 제조기업

회사명	FP Corporation	Chuo Kagaku Co., Ltd.	Toyo Seikan Co., Ltd.
자본금	13.1억 엔	72억 엔	10억 엔
매출액	N/A	480억 엔	480억 엔
설립연도	1962년	1961년	2012년
종업원 수	885명	1,702명	2,621명
웹사이트	https://www.fpco.jp/	https://www.chuo-kagaku.co.jp/	https://www.chuo-kagaku.co.jp/
주소	1-13-15, Akebonocho, Fukuyama Shi, Hiroshima Ken, 721-0952, Japan	3-5-1 Miyaji, Konosu City, Saitama Prefecture, Japan	2-18-1 Higashigotanda, Shinagawa-ku, Tokyo 141-8640 Japan
대표상품	- 제품명 : MFP (멀티FP시트) - 특징 : 내열온도 110도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기존 제품 대비 경량화 전자레인지 가열 후 손에 닿는 밑바닥 부분 온도 약 20도 경감 전자레인지 가열 후 보온효과 높음	- 제품명 : DINER - 특징 : 내열온도 130도로 전자레인지 사용가능 친환경 소재 사용(플라스틱 50% 감량) 손잡이 부분이 있어서 전자레인지 사용 시 편리 뚜껑이 빈틈없이 닫혀 국물이 흐르지 않음	- 제품명 : 옥시가드용기(컵, 파우치, 트레이) - 특징 : 플라스틱용기로서는 처음으로 커피음료, 스프 등을 따뜻한 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함. 친환경 소재 사용(플라스틱 50% 감량) 전자레인지 직접 가열 가능 주 사용처는 식품(보존용 밥, 베이비푸드, 스프, 죽, 소스 등), 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
			

[자료 : 각사 홈페이지]

신 동향 파악에 유의가 필요하다.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확인해야만 한다.

또한 생산기술, 기능 등 지적재산의 보호를 받는 케이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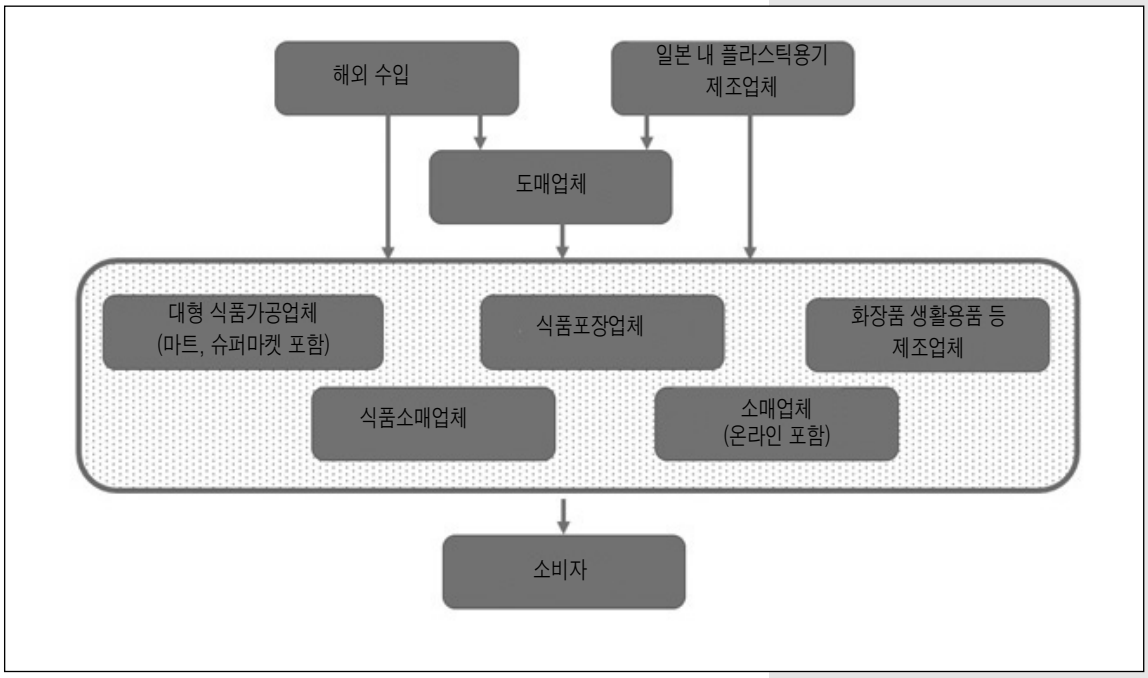
특수 기능일 경우 특허권, 의장권 등도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식품위생법(용구, 용기, 포장) 포지티브리스트 제도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수출 시 확인이 필요하고, 일본 수입 통관 시 검역소에서 PL적합성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IV. 결론

코로나19로 외출 자제, 상업시설의 휴업 등에 따른 배달 음식, 도시락, 테이크아웃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용기포장 제품이 필요해지고 있다.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되면서 소비 수요 위축을 막기 위해 경감세율제도를 도입했다. 식품의 테이크아웃, 배달제품의 세율은 경감세율제도가 적용

[그림 2] 일본 플라스틱용기 유통구조



[자료원 : KOTRA 도쿄무역관 보유 자료 및 각사 인터뷰]

되어 8%(그 외 소비세 10%로 상향)로, 가격적 이점이 생겨서 포장 음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의 탈 플라스틱 정책으로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도시락 제품의 경우 2027년까지 음식을 담는 용기는 종이류로,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변경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 따라 식품, 음료 등 용기, 포장의 이용자에게 일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유효 활용이 의무화되었으며, 유통업체는 용기의 경량화와 재활용 가능한 소재의 조달, 제안 등이 영업의 필수 과제가 되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재택근무 증가와 외출 자숙 등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늘어났으며, 이를 배달하는 'Uber Eats'나 'Demae can'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배달 및 테이크아웃을 하는 대부분의 중소형 음식점의 경우 간단하고 저렴한 용기, 뚜껑과 본체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을 선호한다"며 "특히 바닥이 깊은 형태가 인기가 있으며, 집에서 용기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어 데워 먹을 수 있는 내열 소재(자사제품인 MFP) 및 내열 단열 소재가 인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 음식, 테이크아웃 제품의 보온성, 보존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슈퍼마켓의 반찬, 도시락, 초밥, 생선구이 등은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하는 디자인성이 필요하다.

일본인이 좋아하는 디자인, 잘 먹는 음식, 일본의 배달 시스템 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제품 제안이 필요하다. PW